

##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정현주\*

### Theoretical Exploration of Migrant Women's Location as Multicultural Borderers: Conceptual Application of *Borderlands*, *Intersectionality*, and *Transposition* to the Feminist Migration Study

Hyunjoo Jung\*

**요약 :**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및 한국사태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주란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다면적인 억압과 정체성 변환의 요구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위치의 정치학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은 이러한 주변화된 존재들이 다양한 정체성 협상을 통해 페미니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식론적 통찰과 개념 및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그것은 글로리아 안잘두아 등이 제안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론, 억압의 교차성 이론,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변위와 유목적 주체론이다. 권력의 교차와 주체의 변화를 공간적 은유로 개념화한 이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상호 맞물려 있는 공간과 젠더, 이주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은 물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이주여성, 경계지대, 메스티자 주체, 교차성, 변위, 유목적 주체

**Abstract :**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theorize women migrants' positional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t particularly examines three recent theoretical approaches within feminist studie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feminist migration study. Migration means a process of continuous negotiations of one's social and material positions within ever changing relations and situations through crossing various borders including national boundaries. Women migrants face multifaceted oppressions due to gendered relation and greater challenges to transform their identities. They embody politics of location through migration. The paper revolves around theories that explore a potential of feminist subjectivation of marginalized women such as female migrants through their identity negotiation and transformation. The theories in questions are *Borderlands* and the *New Mestiza* introduced by Gloria Anzaldúa, *Intersectionality* of oppressions, and *Transpositions* and the *Nomadic Subjects* by Rosi Braidotti who borrowed the theories of Deleuze and Guattari through feminist critiques. These theories all represent power relations and subject transformations through spatial metaphors. Through spatialized understandings,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0072@gmail.com

the paper proposes interlocking relations among space, gender and migration, and explores conceptual tools as well as epistemological insights for Korean migration study.

**Key Words** : migrant women, borderlands, The New Mestiza, intersectionality, transposition, nomadic subjects

## 1. 들어가며

이주의 여성화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이주연구의 경향을 한마디로 응축하고 있는 키워드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도 있지만 여성 이주자의 역할이 과거의 피부양자에서 가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주의 메커니즘과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페미니즘 관점과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정현주, 2008, 895-896; Hondagneu-Sotelo, 2000). 실제로 지난 십여년 간의 초국가적 이주연구에서 각 분야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의 활약은 실로 눈부시다. 이들은 이주에서 젠더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켰고(Pessar and Mahler, 2006), 다양한 개념과 이론의 개발은 물론, 젠더화된 이주가 야기하는 지구화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구했다. 젠더를 이주연구의 중심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이주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가 축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여성과 젠더를 그저 '더 많이' 연구하라고 주문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주와 여성, 그리고 젠더가 이 시대와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무엇을 함의하는지, 어떤 지식을 창출하며 또는 창출해야 하는지를 되짚으면서 이주와 여성, 젠더의 문제를 더욱 깊게 성찰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십여년간 다문화정책과 결혼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적 통찰을 담은 이주연구가 유행처럼 쏟아져 나왔으며 수많은 설문조사와 경

험연구들을 통해 많은 사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소개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이주여성들의 파란만장한 이주경험이나 다층적인 억압의 실태를 조망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협상해 나가는 데 여성들의 에이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보여주는 서사 구조를 주로 취하고 있다. 이제는 개별적인 사례연구들의 생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여성 일반과 지구화, 현 시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밝혀주는 이론화 작업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화 작업을 위한 시론적 탐색이다. 그 탐색을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해하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위치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여성'이 함의하고 있는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론적 연구들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이주가 최근 여러 학문분야를 아울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이동(mobility)이 만들어 내는 온갖 현상들이 지구화 그 자체를 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국경과 영역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던한 에이전시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 국가의 통제(이민정책 등)에 의해 존재를 규정당하며(그들은 비자 유형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불린다) 경계너머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타자화를 경험하면서 공간에 갇히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즉 그 자체로 지구화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체현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특히 이주자들의 생은 한 편의 공간드라마이다. 이주는 국경을 비롯한 각종 경계를 끊임없이 횡단하는

과정이며 경계넘기는 새로운 위상학적 관계 속에 자신을 (재)위치시키는 작업을 수반한다. 또한 낯선 공간에서 이방인으로 시작해야 하므로 공간의 제약과 공간을 극복하는 과제에 그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는 실험과 실천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된다. 즉, 이들은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Rich, 1976)<sup>2)</sup>을 생존전략 삼아 자신에 대한 위상학적 독해를 내면화한다.

이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타자성을 지녀 온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여성이다. 남성과 이성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립항으로 설정된 것을 여성으로 명명하고 타자화하는(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하다) 남성중심적 이원론 체제에서 여성은 늘 상대적인 타자의 위치를 점유해 왔다(정현주 옮김, Rose, 2011). 그러나 지구화 시대의 향상된 이동성과 이주의 증가는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사센이 말한 ‘생존회로’(Sassen, 2002)의 여성들은 ‘세계화의 하인들’(문현아 옮김, 2009)로 그 타자성이 지구적인 스케일로 한층 더 심화되기도 하며, 초국가적 상상력과 다문화적 적응력을 습득하여 높은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한다(쓰지모토 도시코, 2006; Jung, 2012). 이 두 과정은 따로 또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이주여성의 몸과 생활 공간은 이러한 모순이 부딪히고 협상되고 우연적 조합이 발생하는 장이 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이주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순의 극대화된 체현, 경계넘기가 기존의 권력관계를 교란하면서 파열음을 낳는 그 지점에서(Lan, 2003을 참고) 바로 대안적인 페미니즘적 주체를 상상하고 형상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을 호소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주체는 마르크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시대 지구적 자본주의의 다층적 모순을 체현한 ‘프롤레타리아’이며, 네그리와 하트의 언어를 빌리자면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야만인’(윤수종 옮김, 2002)이며, 들뢰즈와 과타리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경계를 횡단하고 이원론적 지배 질서로부터 탈주하는 ‘유목민’(김재인 옮김, 2003)이다. 단 이들 개념들이 젠더중

립적이고 비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나왔다는 점은 유감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의 언어로 지구화 시대 여성들의 횡단과 이동(또는 그렇지 못함)을, 그리고 위치의 정치학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구화 시대 탈경계의 주체로서 이주여성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를 탐색하고자 한다. 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적 도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이주 여성의 ‘위치의 정치학’을 이론화하는 데 유용한 공간적 상상과 통찰을 제공해야 하며, 둘째, 페미니즘적 주체를 형상화하는데 유용한 언어와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적 상상과 통찰이 접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주를 위상학적 관점, 위치의 정치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페미니즘적 주체를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가 지적 유희에서 맴돌지 않고 그 자체가 페미니즘적 기획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소개하고 그 효용성과 전망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검토할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은 경계지대(borderlands)와 메스티자 주체론(The New Mestiza), 억압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 변위(transposition)와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s)에 대한 이론이다. 각 이론들은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여전히 논쟁을 양산하고 있지만 이주연구에서는 몇몇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간간히 거론되지만 했을 뿐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주연구자들과 이론 생산가들과의 지적, 물리적 간극이 크기 때문인데 이는 페미니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학문 분과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페미니즘 연구 분야 내에서도 유난히 경험적이고 현장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이주연구에 이론적인 접근을 접목하는 탈경계적 학문하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초점이 각 이론이 이주연구에서 접목되는 지점을 추출해 내는 데 있기 때문에 각 이론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는 많은 이론적 후속연구들과 경험연구들을 통해 극복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이주연구의 지형에서 검토하되, 특히 한국의 사례에서 적용된 선례와

앞으로의 전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2. 경계지대의 문화번역가

경계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없이 살아야 하고  
교차로가 되어야 한다

(Anzaldúa, 1999, 217,  
'경계지대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 중)

'경계지대'(borderlands)는 치카나(Chicana)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자 시인/소설가/이론가인 글로리아 안잘두아(Anzaldúa)의 저서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sup>3)</sup>에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서 경계지대는 다중적 주체인 본인처럼 제국의 주변부에 존재하면서 경계가 모호하며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는 현장에 대한 비유로서 쓰인 말이다. 경계지대의 실존 모델은 안잘두아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멕시코 접경지대<sup>4)</sup>이다. 과거 아즈텍 왕국의 일부였던 이 지역은 16세기 초반 스페인에 의해 식민화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에 의해 점령되어 현재까지 미국 영토로 있는 지역이다<sup>5)</sup>. 안잘두아는 경계란 단절된 인위적인 선을 일컫지만 경계지대란 이러한 인위적 경계에 의해 창출된 불편한 감정들이 합쳐져서 만들어 낸 모호하고 확정되지 않은 장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환 중에 있는 곳, 그래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모호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Anzaldúa, 1999, 25).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구분하기 위해, 누가 '우리'이고 누가 '그들'(타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와 달리 '경계지대'는 경계를 희석하며 다공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수많은 경계가 교차하는 이 경계지대는 제국의 억압과 차별, 모순이 겹겹이 누적된 곳으로 주변부 하위주체들의 생존투쟁의 장이다. 이 경계지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저항적 주체의식을 발아시키기도 한다.

안잘두아는 인종, 국적, 계급, 젠더의 이분법이 와해되고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된 이 경계지대에서 제국의 착취와 모순에 저항하면서도 마초적 민족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양자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성을 '메스티자 주체성'이라고 명명한다. 스스로를 치카나이자 페미니스트이며 퀴어가 '되기'로 작성한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반반(half and half) (Anzaldúa, 1999, 41)이라는 모호한 위치에 자신을 전략적으로 위치시킨다. 이 모호한 위치가 용인되는 곳, 모호한 정체성들이 경합하는 곳이 바로 경계지대이다.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이중의 식민화 경험이 만들어 낸 계급적·인종적 소외와 더불어 치카노 민족 내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 마초 전통으로 인한 젠더 억압은 치카나 여성에게 '삼중억압체제'(노승희, 2005)를 공고히 해왔다. 유럽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 혈통을 지칭하는 메스티조 여성형인 메스티자는 이 삼중억압체제가 규정하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주체로서, 전략적 정체성인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저항주체를 의미한다(노승희, 2005, 41).

안잘두아가 세리 모라가(Cherrie Moraga)와 함께 편저한 책으로 미국의 유색인종 페미니즘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저작인 『내 등이라고 부르는 이 다리』(*This Bridge Called My Back*, 1981)에 실린 강연글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제3세계 여성 작가들에게 보내는 편지』(Anzaldúa, 1981)를 보면 안잘두아가 말하는 경계지대에 선 저항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글은 인디언 여성, 아시아계 여성, 흑인 여성, 홀어머니 레즈비언, 미국 밖의 다른 제3세계 여성들에게 백인중심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문화적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되는 역할을 거부하고 백인 페미니즘에 의해 예외적 사례로 대변되는 것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이다(노승희, 2005, 29). 안잘두아가 연대의 파트너로 지목한 이들은 고정된 '유색인종' 내지는 '제3세계' 여성이라기 보다 이러한 여성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지구화 시대의 여러 하위주체들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국경 횡단을 통해 정착지에서 인종적, 계급적, 젠더적 타자로 전략하며 '탈구적 위치(dislocation)'(문현아 옮김, 2009,



51)에 놓여진 현대의 이주여성들 역시 안잘두아가 말한 ‘제3세계’ 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메스티자 주체론은 이들에게 제3의 대안적 정체성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국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인식론은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메스티자 주체의 의지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되었다. 문화번역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언어 간의 1:1 교환을 넘어 타자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문화연구에서 근대를 성찰하는 비판적 도구로 많이 쓰인 개념이다(김현미, 2006, 48). 수많은 의미가 경합하는 문화적 경계지대에서 번역은 의미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인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이 번역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치카노 문화전통에서 번역자(translator)는 반역자(traitor)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김현미, 2005, 60) 그 연원이 바로 메스티조라는 새로운 인종의 어머니가 된 라 말린체(La Malinche)에게 있다.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코르테즈의 통역관을 자처하며 정부(情婦) 역할을 했던 이 여성은 코르테즈의 정복 전쟁을 도운 원주민 여성이었고 후에 코르테즈의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저주받은(치카노 혈통의 순수함을 더럽힌) 혼혈인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남성중심의 민족영웅서사에서 라 말린체 신화는 반역과 오염을 여성성의 본질로 왜곡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라 말린체를 치카노 여성성의 본질로 호도해 온 것이야말로 남성 영웅서사를 합리화하는 ‘번역’ 작업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안잘두아 역시 치카노 문학에서 모성을 구성하는 핵심 신화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노승희, 2005) ‘번역’과 ‘번역’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경계지대의 다중적 주체들의 수행을 ‘번역’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이주여성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즉 이주여성들은 수동적으로 동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지대라는 특수한 틈새공간에서 수용국 문화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고 이를 맥락에 맞게 전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적으로 옹호해 온 페미니

스트 이주연구가인 김현미(2010)는 한국으로 온 결혼 이주자들이 만드는 ‘가정’을 문화적 접경지대(경계지대)<sup>6)</sup>로 해석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차이를 해독하고 번역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쪽 문화를 중재하고 재배열하며 자신의 위치를 협상해 나가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들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탈구된 위치를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이 한국사회에서 통할만한 생존 전략인지를 습득하여 타협하고 심지어 가족들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가기도 한다. 가령 한국식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젠더역할이 바로 ‘아침상 차리기’라는 것을 터득한 이주여성이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함으로써(아침상을 차리되 빵으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협상을 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체현하면서 양 측을 중재하는 번역가로서의 이주여성의 역할은 특히 문학작품 속에서 자주 조명되었다. 이주문학이라고 불리는 장르를 통해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물상은 여러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 정교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잘 드러낸다. 가령 박찬순 소설집 『발해풍의 정원』에서 등장하는 여러 조선족 여성들을 분석한 이미림(2013)은 박찬순이 차별 받고 고통 당하는 이주자가 아닌 문화전수자이자 긍정적 이방인으로서 이주자들을 그려냄으로써 다문화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발해’라는 경계지대는 여기 저기에 ‘발해풍의 정원’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조선족 여성들의 문화적 번역을 통해 초국가적으로 재생산된다. 이주민들에 대한 휴머니즘적 연민과 동정의 서사를 극복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이들의 상처와 모순이 집적된 접경지대의 내부를 관찰하면서 이를 관통하는 권력관계망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낳기도 했다. 한국현대소설에서 등장하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상호 교섭하는 장소(동두천, 가리봉동, 식사동 가구단지 등)를 접경지대로 해석한 연남경(2013)은 이들 ‘내부 식민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주변부의 위치를 점하는 한국의 위치성 때문에 민족/계급/인종적 서열화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투쟁의 장이 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접경지대에서 살아가는 한국 내 이주민들이 처한 다중적 억압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아픔과 상처는 선부른 화해로 봉합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계지대는 상징적이고 비유적 장소로 줄곧 차용되어 왔지만 사실 안잘두아가 그러했듯이 경계지대를 만들어 내는 권력과 저항은 실제 공간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연남경(2013)이 주목한 (비록 소설 속에 등장하지만 실존하는 장소이기도 한) 동두천이나 가리봉동 같은 이주민 집거지일 수도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투쟁의 현장인 집(김현미, 2010)일 수도 있으며,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주여성의 몸(정순국, 2010; Jung, 2012)<sup>7)</sup>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이는 권력이 공간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공간을 재의미화함으로써 저항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려는 시도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지대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은유는 실제 공간 분석에도 유용한 시각과 언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잘두아의 시집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는 ‘경계지대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도 노래하듯이 “경계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 없이 살아야 하고 교차로가 되어야”(217) 하지만, 그러한 교차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어 온 면이 있다. 경계지대가 은유로 인식되는 바람에 경계지대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소홀해진 까닭이다. 이는 안잘두아가 말한 ‘피흘리는 경계지대’에서 고통 받는 여성주체가 직면한 억압과 모순의 실체를 충분히 파헤치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는 수행(가령 번역)으로 성급하게 관심이 옮겨간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 3. 교차적 억압의 담지자

이주여성들이 직면한 이중 삼중의 억압의 실태를 풀어내갈 수 있는 담론은 이른바 억압의 교차성

(intersectional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차성이란 서로 다른 억압과 지배의 시스템이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하고 결합하여 구조화된 억압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각 개인이 처한 억압과 지배의 국면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임을 함의한다. 가령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충돌하고 공모하면서 ‘여성노동자’를 특수한 (취약한) 위치에 놓인 타자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억압의 교차성 개념은 제2 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일환으로 제기된 유색인종 페미니즘 연구와 맞물려 1980년대 후반 이후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교차성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스트 법학자인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1989년 논문에서 사용함으로써 유행어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크렌쇼(Crenshaw, 1989)는 그의 논문에서 미국 흑인여성이 처한 이중적 억압의 국면 즉, 흑인해방운동의 성차별주의와 미국 페미니즘의 인종주의를 동시에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 페미니즘이 사실상 백인 중산층 여성에 의해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주로 대변할 뿐 다른 범주의 여성들의 ‘입장’(standpoints)은 대변하지 않는다는 페미니즘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sup>8)</sup>. 남성과 여성이 다르듯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간격이 존재한다. 심지어 서구 백인 여성은 오늘날의 흑인여성과 제3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강력하게 규정한 노예제와 식민주의 착취의 역사에서 공모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가부장제에 더해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인종차별주의라는 이중, 삼중의 억압을 경험해 온 여성들(서구 내 흑인여성, 제3세계 주변부 여성 등)의 시선에서 볼 때 서구(백인) 페미니즘은 지배담론의 아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가령 여성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속박시키는 ‘집’은 남성들이 이상향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이며 은밀한 폭력의 현장이기 때문에 모성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가정 내 젠더 분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구호들<sup>9)</sup>은 미국 내 흑인여성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흑인 지역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항상 존재했지만 그보다 흑

인여성들에게 더 절박했던 사안은 백인 지배집단에 저항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안전공간으로서 '집'을 사수하는 것이었다(hooks, 1990). 그녀들에게 모성의 실천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주체를 길러내는 의지적 선택이며 저항의 수행이었다. 즉 '집'이라는 공간은 인종과 젠더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저항의 정치를 배태한 포용적 공간인 것이다(박용진·정현주 외, 2014, 288).

교차성이라는 인식은 젠더가 여성을 규정하는 단일하고 가장 중요한 범주가 아니라 젠더와 결합한 계급, 인종, 국적, 종족, 종교, 연령 등이 복합적으로 여성의 위치와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여러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가져 온 화제성에 비해 실제 분석에서는 여러 한계를 노정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개념이 가진 모호성과 무엇이든 다 되는 개방성(open-endedness)에 있다(Davis, 2008, 77). 젠더가 다른 범주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양상을 학문적인 형식과 언어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기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방법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개념은 아직 미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차성 연구의 방법론적 보완을 제안하는 몇 안 되는 연구 중 이주와 공간연구와 관련하여 함의를 주는 두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차성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분석하자는 주장이다. 샌드라 하딩의 제안에 근거하여 윈커와 드겔(Winker and Degele, 2011)은 사회구조/상징적 재현/정체성 구성이라는 거시/중범위/미시적 수준의 틀을 미리 설정하여 각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교차성의 양상을 분석한 뒤 각 수준을 교차하는 행위자의 수행을 분석함으로써 다중적 차원의 교차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안했다. 둘째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질 발렌타인(Gill Valentine)이 제시한 방법으로서, 특정한 교차성의 작동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로서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장'을 일종의 서사적 틀로 활용하는 것이다. 발렌타인은 여성장애인을 사

례로 하여 이 여성의 생애사적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교차성 서사를 재구성하였다(Valentine, 2007). 즉 삶의 몇몇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특정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교차성의 양상을 드러내는 민족지적 글쓰기의 한 사례를 제시한 셈이다. 이들 연구가 내포하는 중요한 함의는 첫째, 공간의 차원(또는 스케일)에 따라서 교차성의 작동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며, 둘째, 삶의 장으로서 공간은 권력의 작동을 매개함으로써 교차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차성의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을 개념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국가적 월경과 탈영토화 및 재영토화를 끊임없이 수반하는 이주가 바로 다중스케일적 과정이며, 공간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차성과 공간의 접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본다.

국내 이주연구에서 교차성 개념은 거의 소개된 바 없지만 해외에서 출판된 두 권의 한국 사례연구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교차성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 신지원(Julia Jiwon Shin)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한국 이주노동 시장이 젠더화/인종화된 양상을 고찰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과 4대보험 적용, 내외국인 차별철폐와 같은 일견 선진적인 제도하에서도 국내 이주노동시장은 매우 취약한 하위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Shin, 2009). 특히 요식업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적/성차별적 억압이 이들을 어떻게 또 하나의 하위계급으로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남성노동자와 달리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했다(Shin, 2009). 정현주(Jung, H., 2012)는 한국 농촌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사례로 하여 이들에게 가해지는 주류사회의 성차별적/인종차별적/계급화된 담론이 이주여성들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며, 이들 여성이 자신들의 민족/젠더/학력/연령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주류사회의 억압적 시선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전자의 사례연구가 국가적 스케일에서 억압의 교차성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조명하였다면, 후자는 그러한 교차성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위치를

협상하는 미시 스케일에서 저항의 정치를 조명한 셈이다. 두 연구는 교차성 개념이 이주여성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 4. 변위하는 유목적 주체

마지막으로 검토할 변위(transposition)라는 개념은 들뢰즈와 과타리의 철학을 페미니즘적 비판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라이도티의 철학 전반과 그녀의 사상적 지형도를 구성하고 있는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경유하여 성차(sexual difference)이론을 옹호하는 페미니즘 사유<sup>10)</sup>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작업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브라이도티 이론의 몇몇 편린을 취하여 향후 이주여성 연구에 도전적인 질문과 제안을 던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브라이도티도 언급했듯이 변위는 원래 음악과 유전학에서 사용되어온 개념이다(박미선 외 옮김, 2011). 음악에서 변위는 음표들의 상대적 위치는 유지한 채 음조변환을 통해 음표들을 재배열함으로써 불연속적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변주곡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유전학에서 변위는 바바라 맥클린톡(McClintock)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획기적인 발견으로 유기체의 유전적 변이를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다. 맥클린톡이 발견한 변위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특정 유전자와 함께 배열되면 (이 유전자들이 세트) DNA내에서 자리이동(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약해서 다른 곳에서 복제된 유전자들로 인해 새로운 유전자 배열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브라이도티가 변위라는 용어를 자신의 철학이론에 차용하게 된 이유는 변위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음표나 유전자들 간의 재배열), 그것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양적 복제가 아니라 질적인 변신을 가져온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브라이도티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바로 유목적 사유, 유목적 윤리학을 통한 변혁이다. 브라이도티는 유목적 윤리학의 두 단계로서 첫째,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둘째, 관점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현실을 재인식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하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변위라고 보았다(박미선 외 옮김, 2011, 12-13). 철학에서 변위는 기존 패러다임이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을 가능케 해주는 창의적인 인식론적 전환으로 마치 유전자들이 여러 곳으로 도약하듯이 동시다발적이고 다층적으로 기존의 사유의 경계를 횡단하는 것이며, 언뜻 보기에 서로 관련 없는 듯 한 요소들 간의 우연적 조합과 상호관련성을 그려보는 사유방식이다(박미선 외 옮김, 2011, 14).

유목적 윤리학은 유목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실천을 뜻한다. 여기서 '유목적'이라는 은유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유목적 철학(김재인 옮김, 2003)에서 차용한 것으로, 서구의 이원론에 내재된 본질주의를 해체하고 차이들을 가로지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합으로, 에너지의 흐름으로, 분자적-되기의 과정으로 존재를 상상하는 유동적인 사유방식을 뜻한다(이진경, 2002). '유목적 주체'는 들뢰즈와 과타리의 유목적 페미니즘적으로 급진화한 개념이다. 유목적민은 계급, 인종, 젠더, 종족, 라이프 스타일, 연령, 섹슈얼리티 등에 따라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체 내부에서 등장하는 다양성과 차이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개념적 도구이다(박미선 외 옮김, 2004, 13). 유목적민은 이러한 차이를 협상하면서 맥락과 상황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변형시켜가는 존재인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그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많은 차이들 중 성차는 다른 차이들과 등가적이지 않다고 봄으로써 남녀 모두 똑같은 '여성-되기'를 거쳐 새로운 섹슈얼리티로 융합된다고 가정한 들뢰즈와 결별한다<sup>11)</sup>(박미선 외 옮김, 2004, 186-196). 대신 성차를 체현한 육체를 주체를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다른 모든 차이를 아우르면서도 통일성을 담보한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목적 주체이다.

브라이도티는 전지구적인 양극화의 심화와 자연의 파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생명공학의 자본주의적



유착 등을 현 세대가 당면한 문제로 제시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차이를 변위하고, 분과 학문에 갇힌 지식을 변위하여 통합하며, 인간과 비인간, 자연을 가르치르는 새로운 윤리성과 지구적인 책임감을 담지할 것을 유목적 주체에게 주문한다. 브라이도티의 이론은 다소 급진적이고 여전히 추상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잠정적인 이주자로 살아가게 되는 지구화 시대의 이주연구에 특히 중요한 함의를 몇 가지 던진다.

첫째, 브라이도티가 이야기하는 유목적 주체론은 생존회로를 통해 이주하는 이주여성이든 그러한 이주여성의 감정노동을 소비하는 제1세계의 여성이든 ‘여성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언뜻 보면 유목적 주체는 제1세계의 고도로 교육받은 여성(마치 브라이도티 본인처럼)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많은 차이들을 경유하면서 정체성의 변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작업은 높은 수준의 자기 각성과 네트워킹 능력, 의지 등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아마도 브라이도티 자신도 스스로에게 또는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서구의) 페미니스트 동지들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의 제안이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 주체들에 의해 창의적으로 또는 변위적으로 독해되길 바랬을 것이다. 이는 『유목적 주체』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상황적 해석을 축구한 역자의 서문에서도 드러난다(박미선 옮김, 2004, 21-23). 따라서 ‘상황적 지식’(Haraway, 1988)을 가진 유목적 주체의 ‘위치의 정치학’(Rich, 1976)에 입각하여 우리의 위치(가령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와 이주여성 문제)에서 절실한 윤리적 의제를 개발하고 유목적 주체론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하위주체인 이주여성이 유목적 주체로 변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적, 교육적, 학문적 실천이 바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뜻 보면 제1세계의 교육받은 여성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 유목적 주체의 높은 에이전시는 경계를 횡단하는 이주자들의 이주경험을 통해서도 습득될 가능성이 있다. 유목적 주체론을 제1세계에만 국

한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계넘기라는 행위는 각종 차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필히 수반한다. 즉 이주자들은 관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존적인 유목민인 것이다. 이들이 복잡한 이주경험을 축적할수록 협상력과 회복력(resilience)은 더욱 배가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더욱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간다. 이주를 통한 이 같은 자아의 변형이 바로 변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도티의 사유는 이주자들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는 이론적·언어적 자원으로서 유용하다.

따라서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론을 더욱 확장하여 독해하자면 하위주체인 이주여성이 비슷한 위치의 또 다른 여성들(제3세계 주변부 여성들, 제1세계 내부에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지닌 타자화된 여성들)과 수많은 차이들을 가로질러 다양한 지점에서 리즘적인 연대를 이루어낼 것을 독려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다중심적 연대를 이루어내는 연결고리가 바로 정체성과 차이들의 창발적 조합과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주체의식을 생성하는 ‘변위’ 과정일 것이며,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계와 문화의 겹들을 가로질러 다면적인 탈구와 모순을 견뎌내 온 이주의 경험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경계지대의 새로운 메스티자 주체의 생성과 개념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브라이도티는 제1세계의 여성들(가령 이주여성 연구자, NGO 활동가 등) 스스로도 유목적 주체가 되라는 윤리적 강령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러 ‘입장들’을 아우르는 이론으로 전유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브라이도티의 이론을 이주연구에 곧바로 적용한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도 전례가 거의 없지만<sup>12)</sup> 최근 한국의 경험연구에서 변위 개념을 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희영(2012)은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이라는 파란만장한 생애사적 전환을 겪은 북한 출신 여성을 사례로 한 구술사적 연구에서 이들이 초국적 이주를 통하여 정체성을 변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연구에서 소개된 여성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인(불법적

인) 탈북자의 신분에서 몸을 성애화하여 신분세탁을 하고 결국 한국으로 이주하여 아내로, 사업가로 정착해 나가면서 또 다른 초국가적 장에서의 미래를 설계하는 극적인 정체성 변화와 협상력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를 ‘거슬러’ 이동하면서(이희영, 2012, 37) 다양한 인간·비인간적 네트워크와 유대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다른 조선족 남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매개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북한 여성들을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끈 데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북한과 중국 조선족 사회에 공히 작동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같은 비의지적(구조적) 힘들이 작용했지만 이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삶을 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켜 나간 것은 의지적인 주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각각을 한국의 이주연구에서 적용한 사례를 통해 각 이론들이 이주연구에서 접목될 수 있는 지점들과 가능성들을 전망해 보았다.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성, 억압의 교차성, 변위와 유목적 주체는 각각 서로 다른 연구자 집단들이 상이한 맥락과 논쟁지형 속에서 발전시킨 이론들이다. 그러나 상호인과성이 없이 발전된 각각의 이론과 개념들이 이주 연구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수렴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지향점과 합의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세 가지 접근 모두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가운데서 유의미한 연대의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3물결 페미니즘의 우산 아래 등장하였다. 특히 여성성과 성차를 무화하지 않고 여성성·성차와 특히 인종·종족성을 결합하여 여성억압과 급진적인 저항의 지점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하인’(문현아 옮김, 2009) 또는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하층민(정현주, 2013)으로서 다양한 권력관계망의 말단에 위치하는 여성 이주자들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 준다.

둘째, 각 접근은 교차하는 억압 속에 갇혀 있거나 수많은 차이들 사이를 진동하기만 하는 여성적 타자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적 주체를 상상하고 형상화하고자 했다. 특히 메스티자 주체와 유목적 주체는 맥락은 다르지만 차이들을 변위하고 남성중심적 이원론을 탈주하여 새로운 언어로(안잘두아는 영어와 치카노 스페니쉬를 섞어 쓰는 시를 써서 제국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은 언어를 형상화하고자 했다)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페미니즘적 주체를 표상한다. 교차성 역시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협상하는 여성 주체에 대한 연구로 전유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민족, 언어, 인종, 계급, 성적 다양성을 지닌 이주 여성들이 지배질서가 강요하는 수동적이고 타자화된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들을 조합하고 협상하고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위치로 도약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지지하고 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페미니즘적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이 한국의 이주여성 연구에서는 특이나 절실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주여성 정책은 ‘한국식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오경석, 2007)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여성과 기타 이주자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로 간주하여 관리하는데 전자는 국민의 배우자나 어머니로서 가족 및 인구정책의 대상에 편입되며 대다수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며느리·아내 되기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하는 국가주의적 성차별주의를 노정한다. 반면 다문화정책의 수혜대상에서 비껴난 노동이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예비군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상황은 신지원(2009)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몰고 있다. 결국 여성이주자들은 아내 vs. 노동자로 분리된 정체성을 강요받으며, 결혼이주자들은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시선 아래에서 타자화되고 노동이

주여성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주는 현재의 이민자 관리 시스템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다문화가정’의 재생산을 위한 젠더역할에 종속시킴으로써 이들을 더욱 성적 타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주자 집단의 분할통치가 고도화된 이주의 시대에 여성 이주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분리되어 서로 상이한 위치의 타자화를 경험함으로써 이들 간의 연대 자체도 매우 회의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이주여성’이라는 하위주체성이 형성되기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서로 다른 위치성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저항의 지점을 선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가부장적 재생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동하는 ‘한국식 다문화주의’에는 성적 타자화 극복이 (서구에서는 주된 쟁점이었던) 인종적·종족적 타자화 극복보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주여성 문제는 페미니즘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계지대, 교차성, 변위 모두 공간적 은유로서, 이동과 모순, 역동성, 관계성이라는 공간의 특징에 기대어 발전된 개념이다. 물론 이들 개념은 메타포로서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 현상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가령 경계지대는 국경이 접한 지역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이주자들은 이러한 공간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을 더욱 강력하게 현실화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가령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공간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집(김현미, 2010), 이주여성의 몸(Jung, 2012)은 그 자체가 경계지대이자 교차로이며 변위가 일어나는 현장이자 변위를 가능하게 해주는(또는 방해하는) 물적/상징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공간적 은유들은 시계열적이고 단선적인 인식론을 극복하고 복수적이고 동시적인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Massey, 2006). 특히 페미니즘 담론에서 공간적 은유와 공간적 상상은 가히 핵심적이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언어적 재현이나 은유는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에 의해 창조되고 변형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간적 은유는 물리적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본다. 양자는 상호 구성적이며 상호 발전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에 기반한 연구는 공간적 상상과 은유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며 각 개념들을 엮어주는 맥락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은 현상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를 매개하는 과정(정현주 옮김, 2015)이라는 비판지리학의 오랜 주장과 축적된 통찰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면 공간-이주-여성 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욱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위치성(positionality)’이라는 용어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개념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페미니즘 등 비판적인 현장연구를 지향하는 분야에서 방법론과 윤리적인 논쟁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위치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연구자의 위치는 연구대상과 분리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처럼 연구방법론에서 ‘위치성’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대하여 취하는 사회적 거리 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통용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행위주체의 위상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서구학계에서는 이러한 위상학적 관계에 대한 은유로 위치(location)라는 용어를 주로 쓰기도 한다(가령 ‘politics of location’). 따라서 본고의 영문제목에도 location이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그러나 본 논문이 함의하는 행위주체의 위치는 비유적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포함한다. 또한 번역어인 한국어 ‘위치’는 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위상학적 관계의 변화를 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위치관계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위치의 변동을 포착하는 용어로서 위치와 관련된 성격을 의미하는 보통명사 ‘위치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은유적인 ‘위치’(location)와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 2) 여성 주체는 여러 정체성들의 교차점으로 구성되며 교차점들의 위치(locations)에 의해 ‘나’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체성의 구성은 의지적인 위치만들기(positioning)의 연

- 속적 과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위치는 사회적/상징적인 위치인 동시에 물리적인 위치(나는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가 등)를 포함하는 매트포이다. 애드리언 리치는 페미니즘이란 곧 위치의 정치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 3) 직역하면 『경계지대들/경계: 새로운 메스티자』인 이 책은 시와 산문으로 구성된 자서전적 성격을 지닌 책이다. 1987년에 초판이 나온 뒤 1999년과 2012년에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판본이 출판되었다.
  - 4) 저자의 고향인 남부 텍사스의 미국-멕시코 접경을 배경으로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유형, 무형의 경계와 그 경계들이 함의하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계지대는 이러한 경계들을 모호하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대안적 실천을 도모하는 제3의 공간이다. 부제인 '새로운 메스티자'는 이러한 실천을 도모하는 페미니스트 주체를 의미하는데, 겹겹의 억압과 폭력을 체현하면서 경계지대의 모호함과 내적 다양성 및 모순을 증재하고 견디는 주체로 묘사된다. 이는 차이와 모순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려는 지배주체와 대척점을 이루는 저항주체가 된다.
  - 5) 1846년에 미국이 멕시코를 침입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에서 멕시코가 패하면서 영토의 절반가량을 미국에게 내주게 되었다. 오늘날의 텍사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가 이에 해당된다(노승희, 2004, 263). 이 지역에 살던 주민과 그 후손을 차카노(Chicano)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하루 아침에 조국을 빼앗기고 적국의 땅에서 시민으로 편입되면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물리적으로 이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과 다를 바 없는 정체성, 또는 제1세계 내의 제3세계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 6) 경계지대는 접경지대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후부터 저자가 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7) 정순국(2010)은 경계지대가 배태한 혼종적 몸(안잘두아는 자신의 몸을 '괴물'이라고 불렀다)은 지배자의 권력과 폭력을 체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질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Jung(2012)은 결혼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몸을 규정하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적 대상화된 주류사회의 담론이 이주여성들을 오히려 침리적/물리적으로 가두어 두기도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 8) 이러한 주장을 페미니스트 입장이론(feminist standpoints theory)이라고 한다. 지식은 주체가 처한 위치에서 생산되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모든 지식은 파편적이고 특정한 맥락에서만 유용하다고 본다. 근대 과학이 주창하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

- 보한 지식에 반대하는 이 같은 지식을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고 부른다(Haraway, 1988). 입장이론은 특수한 위치에 놓인 여성주체의 시선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의 유용성을 옹호함으로써 흑인페미니즘 사상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도로시 스미스(Dorothy Smith)가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학을 주창한 이래로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접목시켜 발전시킨 이론가는 낸시 하트삭(Nancy Hartsock)이다. 하트삭(1983)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체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판의 지점들을 알고 있듯이 가부장적 젠더분업 체제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모순과 틈새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고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저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교차하는 억압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를 점해 온 미국 흑인 여성은 이러한 억압의 매트릭스에 대해 가장 통찰력 있으며, 심지어(지배계급보다) '더욱 객관적인'(Harding, 1992)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다고 주장된다. 지배자의 집에서 지배자의 그림자처럼 머물면서 그들의 취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았지만 결코 지배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지 못했던 흑인여성들의 특수한 위치처럼 안이면서도 바깥에 위치한 아웃사이드의 모순적 위치성(outsider within)은 저항의식을 형성하는데 특별한 통찰력을 준다고 페트리샤 힐 콜린스(Collins, 1986)도 주장하였다. 입장이론의 대표적인 글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Harding, S.(ed.), 2004,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Routledge, New York.
- 9)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이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제는 여성학의 고전이 된 그녀의 책 『여성성 신화』(Feminine Mystique, 1963)는 '안락한 포로수용소'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미국의 중산층 주부들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해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성 신비』(김현우 역, 2005)로 출간되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라고 판단되어 한국판 제목을 따르지 않았다.
  - 10) 성차이론은 성의 차이가 육체에 각인된 것으로 보며 다른 차이의 지점들에 비하여 더 중요한 무게를 가진다고 보는 페미니즘 이론의 한 분파이다. 남녀 차이를 항구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와는 달리 성차이론은 후기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성을 남근이성중심주의가 재현한 상징체제로 파악함으로써 성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복수의 성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브라이도티는 언어적 재현인 여성성이 육체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



준적이며 물질적인 결과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성차가 체현된 육체야말로 여성적 주체성의 발화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차를 무화시키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 전략으로서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입장은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젠더이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1980-90년대 서구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논쟁지형을 형성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목적 주제』 8장과 15장을 참고할 것.

11) 브라이도티가 볼 때 들뢰즈는 남성 주체의 입장에서 여성-되기의 과정을 일반화함으로써 성차를 중화해 버렸다(브라이도티, 2004, 198). 여기서 들뢰즈가 말한 ‘여성’은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구체적인 여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적 위치를 의미한다. 들뢰즈와 브라이도티 모두 서구 이원론으로부터 탈주하는 주체를 상상했으나 브라이도티는 남성적 주체와 여성적 주체는 이원론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역사적으로 위치지워져 왔기 때문에 출발선부터가 다르며 따라서 탈주 전략(또는 탈주하는 지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12) 브라이도티의 변위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입장에서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협상과 주체화 과정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있다. 이해웅(2005), 이태정(2012) 등을 참고.

### 참고문헌

김영옥, 2009,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이화여자대학출판부.

김재인 옮김, 2003, 천개의 고원, 새물결, 서울(Deleuze, G. and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Editions de Minuit, Paris)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너머, 또 하나의 문화.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145-174.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58-79.

노승희, 2004, “글로벌리아 안잘두아-경계선 없는 경계지

대를 살아가기,” *여/성이론*, 11, 259-272.

노승희, 2005, “전지구화 시대의 대항 페미니스트 주제: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유색여성 페미니즘과 메스티자 주제론,” *영어영문학* 21, 18(1), 27-52.

문현아 옮김,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도서출판 여이연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박미선 옮김, 2004, 유목적 주제: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여이연 (Braidotti, R., 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박미선 외 옮김, 2011, 트랜스포지션: 유목적 윤리학, 문화과학사 (Braidotti, R., 2006, *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 Polity Press, Cambridge).

박용진·정현주 외, 2014, 사상가들 도시와 문명을 말한다, 한길사.

연남경, 2013,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접경시대와 구성되는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 253-281.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윤수중 옮김, 2001, 제국, 이학사, 서울(Hardt, M and Negri, A., 2000,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이미림, 2013, “다문화경계인으로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 박찬순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1, 205-228.

이진경, 2002,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이태정, 2012, “한국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재위치화: 두 개의 세계, 이중의 종속, 변형적 아이덴티티,”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11-227.

이해웅, 2005,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2), 107-143.

이혜경, 2010, “이주 여성들의 다중정체성- 국가·가족·계급·이주민공동체,” *로컬리티 인문학*, 3, 351-360.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

- 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45.
- 정순국, 2010, “다문화 사회에서의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경제지대들/경계선에서: 새로운 메스티자』의 혼성성의 시학,” *영미문화*, 10(2), 231-266.
- 정현주, 2009,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정현주, 2013, “아시아 이주여성, 세계화의 하녀인가 취업인가,” *성혜영 · 이경하 외, 문명의 교류와 충돌: 문명사의 열여섯 장면*, 한길사, 109-135.
- 정현주 옮김,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정현주 옮김,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쯔지모토 도시코, 2006,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 형성을 위한 이주여성의 저항과 전략-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zaldúa, G., 1981, Speaking in tongues: a letter to 3<sup>rd</sup> world women writers, in Moraga, C. and Anzaldúa, G. (eds.),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Persephone, London, 165-174.
- Anzaldúa, G., 1999,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2<sup>nd</sup> Edition), Aunt Lute Books, San Francisco.
- Collins, P. H., 1986, Learning from the outsider within: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black feminist thought, *Social Problems*, 33(6), s14-s32.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Special Issue: Feminism in the Law: Theory, Practice and Criticism)*, 139-167.
- Davis, K., 2008, Intersectionality as buzzword, *Feminist Theory*, 9, 67-85.
- Haraway, D.,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 575-599.
- Harding, S., 1992,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what is ‘strong objectivity,’ in Alcoff, L. and Potter, E. (eds.), *Feminist Epistemologies*, Routledge, New York.
- Harding, S., (ed.), 2004,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Routledge, New York.
- Hartsock, N., 1983, *Money, Sex, and Power: Toward a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Longman, New York.
- Hondagneu-Sotelo, P., 2000, Feminism and migr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1, 107-120.
- Hooks, b., 1990, Homeplace: a site of resistance, in hooks, b.,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South End Press, Boston, 41-49.
- Jung, H., 2012, Constructing scales and renegotiating identities: women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1(2), 193-215.
- Lan, Pei-Chia, 2003, “They have more money but I speak better English!”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Filipina domestics and Taiwanese employ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0, 133-161.
- Massey, D., 2006, *For Space*, Saga, London.
- Moraga, C. and Anzaldúa, G. (eds.), 1981,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Persephone, London.
- Pessar, P. R. and Mahler, S. J., 2006, Gender matters: ethnographers bring gender from the periphery toward the core of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27-63.
- Rich, A., 1976,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orton, New York.
- Sassen, S.,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254-274.
- Shin, J. J., 2009, The gendered and racialised division in

the Korean labour market: the case of migrant workers in the catering sector, *East Asia*, 26, 93-111.

최초투고일 2015. 5. 26

수정일 2015. 6. 16

최종접수일 2015. 6. 22

교신: 정현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메일: jung0072@gmail.com)

Correspondence: Hyunjoo Jung,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ngno, Gwanak-gu,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e-mail: jung0072@gmail.com)